나오는 말

위의 열여섯 가지 조항은 스승, 제자, 학우 사이에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며 명심해야 한다.

생도들 가운데 마음을 잘 간직하고 몸을 잘 단속하여 모범을 준수하고 학문이 성취되어 뛰어나게 칭찬할만한 자가 있을 경우 회의 때에 여러 사람에게 묻고 찬성을 얻으면 착한 자의 명부에 기입하고, 그중에 남달리 뛰어난 자가 있으면 그 실상을 갖추어 사장[29]에게 단자[30]를 올려 권장의 뜻을 표시한다.

만일 여러 생도들 중에 학교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향학[31]의 의욕이 독실하지 않고 놀기만 하며 날짜만 보내고 몸가짐을 삼가지 않고 놓친 본마음을 되찾지 못하며 행동거지가 장중하지 않고 언어가 진실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고 형제에게 우애가

---

29 사장(師長) : 스승과 장자.
30 단자(單子) : 의견을 피력한 간단한 글.
31 향학(向學) : 공부를 하려는 마음.

없고 가정의 법도가 난잡하여 질서가 없고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예법을 경멸하고 본처를 소박하고 음란한 창기를 가까이 사랑하고 부질없이 권세가 있는 사람 찾아가기를 좋아하며 염치를 돌보지 않으며 함부로 사람답지 않은 자와 사귀어 아래 또래에게 굽실대며 술 마시기 좋아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주정에 빠지기를 낙으로 삼으며 송사하기 좋아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만두지 않고 재물의 이익을 계획하여 사람들의 원망을 무시하고 재주 있는 자를 시기하며 선량한 이를 헐뜯고 일가친척과 화목하지 않고 이웃과 불화하며, 제사에 근엄하지 못하고 천지신명에게 태만하며, 한 집안의 제사뿐 아니라 학당의 제사에도 사고를 핑계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도 천지신명에게 태만한 것이다. 혼인, 장례에 돕지 않고 환란에 돕지 않으며 지방에 있어서는 조세에 성의를 다하지 않고, 고을 수령을 헐뜯고 흉보는 일 등등의 잘못은 벗들이 보고 듣는 대로 깨우쳐 주되, 고치지 않을 때에는 장의에게 고해서 유사가 모임에서 드러내어 꾸짖는다. 그래도 고치지 않고 억지 변명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적은 허물이면 모임에서 쫓아내고 큰 허물이면 사장에게 알려서 출재한다. 출재란 학당에 와서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허물을 고친 뒤에는 돌아오게 한다.

나쁜 자의 명단에 기입한다. 학당에서 내쫓긴 자만 나쁜 자의 명단에 기입한다. 학당에서 쫓겨난 뒤에 마음을 바꾸고 허물을 고쳐서 뚜렷이 선을 지향하는 자취가 있으면 다시 학당에 들어오기를 허가

하고 도로 학당에 들어올 적에는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면하여 꾸짖는다. 그 나쁜 자의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 버린다. 만약 끝까지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나쁜 버릇을 더욱 키워 자기를 책하는 이를 도리어 원망하면 사장에게 고하여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어 중앙과 지방의 학당에 통고한다.

제적된 사람이 자신을 원망하고 꾸짖어 현저하게 선을 지향하는 자취가 뚜렷이 보이기 3년을 지난 후에 그것이 더욱 독실할 때에는 도로 입학을 허가한다.

무릇 잘못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법규를 세운 뒤에 기록하고 법규를 세우기 전의 허물은 소급하여 논란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고칠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고치지 않으면 그때에 처벌을 논한다.

교화하는 방법은 스승을 가리는 것보다 우선할 것이 없다. 근래에는 훈도의 임명에 그 자격을 가리지 않고 청탁에만 따르므로 스승의 자리가 도리어 가난한 선비의 밥벌이의 구제가 되고 말았다. 때문에 훈도의 이름이 천하게 되어 서로 비웃고 나무라기까지 한다. 스승이 알맞은 사람이 아니고 보면 선비의 기풍이 날로 쇠퇴해지는 것이 사리와 형세상 필연적이므로 괴이할 것이 없다.

오늘날 비록 옛 법규를 바꾸어 사장을 선택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부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은 법규와 아름다운 뜻도 결국 실속이 없게 되고 말 것이요, 학교에 적을 둔 선비들은 모

두 학문에 뜻이 없고 구실을 피할 것만 꾀한다면 스승은 얻더라도 배울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과거의 그릇된 자취를 크게 바꿔서 남의 이목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성취되기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승을 가려 선비를 양성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삼가 적는다. 이하는 사목[32]을 적은 것이다.

1.

무릇 학문과 덕행이 있어서 남의 추증을 받아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해마다 서울은 한성부와 5부에서, 지방은 감사와 수령들이 각각 성심껏 보고 조사하여 그 실상을 얻어 명단을 적어 올리면 임금의 결재를 얻어 명단을 이조에 내리고, 성균관 당상관 역시 관학의 여러 유생들을 모아 공천하게 하여 합당한 자는 명단을 뽑아 이조에 보고한다. 매년 연말에 서울과 지방에서는 으레 명단을 적어 올린다.

이조는 다시 자세히 검토하여 자리가 비는 대로 차출하되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고을에 으레 자리를 준다. 그 성과를 보아 그중에서 공적이 남달리 뛰어나고 선비의 기풍을 변화시킨 자는 품계를 올려서 실직을 주고, 그다음으로 직책에 충실하여 성과가 있는 자는 곧

32 사목(事目) : 일의 항목, 구체적인 조목

벼슬길을 열어 주며, 또 그다음으로 성과가 있는 자는 임기가 차면 다른 고을로 옮겨서 성과가 더욱 드러난 뒤에 벼슬길을 열어 준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凡有學行, 爲人所推重, 可堪師表之任者,
범 유 학 행 위 인 소 추 중 가 감 사 표 지 임 자

每年, 京則漢城府五部, 外則監司守領, 悉心聞見,
매 년 경 칙 한 성 부 오 부 외 칙 감 사 수 영 실 심 문 견

得其實狀, 鈔名啓下吏曹.
득 기 실 장 초 명 계 하 이 조

무릇 학문과 덕행이 있어서 남의 추중을 받아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해마다 서울은 한성부와 5부에서, 지방은 감사와 수령들이 각각 성심껏 보고 조사하여 그 실상을 얻어 명단을 적어 올리면 임금의 결재를 얻어 명단을 이조에 내린다.

凡: 무릇/有: 있다/學行: 학문과 덕행/爲: ~에 의해서, 爲~所: ~에 의해서 ~되다/推重: 높이 받들어 귀하게 여기다/可: ~할 만하다/堪: 감당하다/師表: 학식과 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任: 임무/者: ~한 사람/京則: 서울로 말하자면, 한양은/漢城府: 한성부/五部: 한성부를 다섯 구역으로 나눈 행정단위/外則: 지방으로 말하자면, 지방은/監司: 감사 벼슬/守令: 수령 벼슬/悉心: 마음을 갖추다, 성심껏/聞見: 보고 듣다/得: 얻다/其: 그/實狀: 실상/鈔名: 이름을 적다, 명단을 작성하다/啓下: 임금의 재가/吏曹: 이조

2.

전직 조정 관리 출신은 파직이나 출신 여부를 불문하고 그중에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은 교관[33]에 제수하고, 6품 이상이면 교수[34]에 제수하며, 7품 이하면 훈도[35]에 임명하여 성과가 있는 자는 임기가 차면 복직하게 한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前銜朝官, 勿論罷職及出身與否, 擇其中可作師表者,
전 함 초 관 물 론 파 직 급 출 신 여 부 택 기 중 가 작 사 표 자

授以敎官. 六品以上則授敎授, 七品以下則授訓導,
수 이 교 관 육 품 이 상 칙 수 교 수 칠 품 이 하 칙 수 훈 도

有成效者, 待仕滿復職.
유 성 효 자 대 사 만 부 직

전직 조정 관리 출신은 파직이나 출신 여부를 불문하고 그중에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은 교관에 제수한다. 6품 이상이면 교수에 제수하며, 7품 이하면 훈도에 임명하여 성과가 있는 자는 임기가 차면 복직하게 한다.

---

33 교관(校官) : 가르치는 벼슬.

34 교수(敎授) : 사학(四學)의 유생을 가르치던 벼슬아치.

35 훈도(訓導) : 서울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정 · 종9품의 교관을 이르는 말. 사부학당 학생들의 교육은 성균관 관원 중 6품 2명을 사학의 교수로, 7품 이하 5명을 훈도관으로 겸임하여 가르치도록 했다.

前銜: 이전의 벼슬, 전직/朝官: 조정 관리/勿論: 막론하고, 구별없이/罷職: 파직당하다/及: ~와/出身: 출신/與否: 여부/擇: 선발하다/中: 중에서/可: ~할 만하다/作: 되다, 담당하다/授: 주다/校官: 가르치는 벼슬/授敎授: 교수의 자리를 주다/授訓導: 훈도의 자리를 주다/有: 있다/成效: 효과를 이루다, 성과가 있다/待: 기다리다/仕滿: 임기가 차다/復職: 복직하다

3.

중앙과 지방에서 뽑혀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만일 생원, 진사이거나 또는 이름이 난 자는 재주와 자격의 유무를 불구하고 곧 교관에 제수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 재주와 자격을 시험하여 요행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京外所鈔師表可當之人, 若生員進士及名字表著者,
경 외 소 초 사 표 가 당 지 인 약 생 원 진 사 급 명 자 표 저 자

則不拘才格有無, 卽授敎官.
칙 불 구 재 격 유 무 즉 수 교 관

不然則必須考其才格, 使無僥倖之弊.
불 연 칙 필 수 고 기 재 격 사 무 요 행 지 폐

중앙과 지방에서 뽑혀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만일 생원, 진사이거나 또는 이름이 난 자는 재주와 자격의 유무를 불구하고 곧 교관에 제수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 재주와 자격을 시험하여 요행

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

京外:서울과 지방/所鈔: 이름을 적은 바/師表: 스승/可當: 담당할 수 있다/若: 만약/生員: 소과 생원시 합격자/進士: 소과 진사시 합격자/及: 및/名字: 이름/表著: 널리 알려지다/則: ~라면/不拘: 구애받지 않다/才格: 재주와 자격/有無: 있고 없음/卽: 즉시, 곧장/授: 주다/校官: 가르치는 벼슬/不然則: ~그렇지 않다면/必須: 반드시/考: 고찰하다, 살피다/使: ~하게 하다/無: 없다/僥倖: 요행/弊: 폐단

4.

서울과 지방에서 학문과 덕행으로 추천되어 벼슬하게 된 자와 생원, 진사로서 벼슬할 만한 자는 먼저 교관으로 시험 채용한 다음 그 능력 여부를 보아서 임기가 차지 않더라도 틈틈이 등용하여 교관과 조정의 관리를 섞어서 한 길이 되게 하는 한편 선비들도 훈도가 되는 것을 영예롭게 뽑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지난날의 천한 이름을 씻도록 한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京外以學行可用被薦將入仕者, 及生進可堪入仕者,
경 외 이 학 행 가 용 피 천 장 입 사 자 급 생 진 가 감 입 사 자

先試之敎官, 觀其能否. 雖不待仕滿, 間間登仕,
선 시 지 교 관 관 기 능 부 수 불 대 사 만 간 간 등 사

使敎官朝士, 混爲一途, 使士流知訓導爲榮選,
사 교 관 조 사 혼 위 일 도 사 사 류 지 훈 도 위 영 선

以洗前日卑賤之名.
이 세 전 일 비 천 지 명

서울과 지방에서 학문과 덕행으로 추천되어 벼슬하게 된 자와 생원, 진사로서 벼슬할 만한 자는 먼저 교관으로 시험 채용한 다음 그 능력 여부를 보아서 임기가 차지 않더라도 틈틈이 등용하여 교관과 조정의 관리를 섞어서 한 길이 되게 하는 한편 선비들도 훈도가 되는 것을 영예롭게 뽑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지난날의 천한 이름을 씻도록 한다.

京外: 서울과 지방/以: ~써/學行: 학문과 덕행/可用: 쓸 만하다/被薦: 추천을 받다/將: 장차 入仕: 벼슬하다/及: 및/生進: 생원과 진사/可堪: 감당할 수 있다/先: 먼저/試之: 시험하다/觀其能否: 능력 여부를 살펴보다/雖: 비록/不待: 기다리지 않다/仕滿: 임기/間間: 중간에/登仕: 등용하다/使: ~하여금 시키다/校官: 교관/朝士: 조정의 관리/混爲一途: 함께 일하게 하다/士類: 선비들/知: 알다/訓導: 교관/爲榮選: 뽑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다/以: ~써/洗: 씻어내다/前日: 지난날/卑賤: 비천하다/名: 이름

5.

학교의 스승은 이미 그 자격을 정선하였으면 또한 예의에 맞도록 대우하여 자중하는 선비가 그 직분에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와 수령이 교관을 늘 우대하여 부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취임하도록 돈독히 권하고 왕명을 받들고 온 사신을 영접할 때에는 『경

국대전』에 의하여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사자의 말머리에 서지 말게 하며, 다만 가르친 유생의 학문 능력의 가부와 몸가짐을 경건과 방종만을 살펴 포폄을 할 뿐 훈도는 시강을 하지 않고 가르치는 방법만을 헤아려 논한다.

그리고 급료를 정하되 목사가 있는 고을 이상은 다달이 쌀과 콩 각 두 섬, 벼 넉 섬을 주고 도호부에는 다달이 쌀 두 섬, 콩 한 섬, 벼 석 섬, 군에는 다달이 쌀 한 섬 닷 말, 콩 한 섬, 벼 두 섬, 현(縣)은 다달이 쌀 · 콩 · 벼 각각 한 섬, 군 이상으로서 특히 쇠잔한 고을에는 감사가 참작하여 적당히 감하여 지급한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鑑司守令, 相加優禮, 如未赴任者, 敦勸令就.
감 사 수 령 상 가 우 예 여 미 부 임 자 돈 권 영 취

迎命時, 只依大典, 候于大門之外, 勿立于馬頭.
영 명 시 지 의 대 전 후 우 대 문 지 외 물 립 우 마 두

只考所敎儒生之學問能否. 指身敬肆, 以爲褒貶.
지 고 소 교 유 생 지 학 문 능 부 지 신 경 사 이 위 표 폄

而訓導則勿試講, 但與商論敎誨之術.
이 훈 도 칙 물 시 강 단 여 상 론 교 회 지 술

감사와 수령이 교관을 늘 우대하여 부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취임하도록 돈독히 권하고 왕명을 받들고 온 사신을 영접할 때에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사자의 말머리에 서지

말게 하며, 다만 가르친 유생의 학문 능력의 가부와 몸가짐을 경건과 방종만을 살펴 포폄을 할 뿐 훈도는 시강을 하지 않고 가르치는 방법만을 헤아려 논한다.

常: 항상/加: 가하다, ~하다/優禮: 우대하는 예의/如: 만약/未: 아직 ~하지 않다/赴任: 부임하다/敦勸: 돈독하게 권면하다/令就: 취임하게 하다/迎命: 명을 받다/只依: 단지 따르다/大典: 경국대전/候: 기다리다/大門之外: 대문 밖/勿立: 서지 말라/于: ~에/馬頭: 말의 머리 부분/只考: 단지 검토하다/所敎: 가르칠 바/儒生: 유생/學問能否: 학문이 있는지 여부/持身: 몸가짐/敬肆: 공경과 방종/以爲: 로 삼다/褒貶: 포폄하다/訓導: 훈도 벼슬/勿試講: 시강을 하지 않는다/但: 다만, 단지/與: ~와 더불어/商論: 상의하고 토론하다/敎誨: 가르치다/術: 방법

6.

생원과 진사를 제외하고 서울의 학문에 뜻을 둔 선비는 모두 하재[36] 또는 사학에 들어가고, 지방에서는 문벌이 높은 집안이나 낮은 집안을 막론하고 유학을 배우려는 자는 향교로 들어가게 한다. 처음 입학할 때에는 생도 10명이 학문에 뜻을 가졌다고 추천한 뒤에 시험하여 입학을 허가하고, 『학교모범』으로 품행을 가다듬게 하고, 만약 구속을 꺼리어 학교에 적을 두지 않는 자에게는 과거를 보지 못

36 하재(下齋) : 성균관에 부속된 기숙사의 하나로 성균관의 동재와 서재 각 맨 아래쪽 두 칸에 위치했다. 이곳에서는 중외(中外)에서 뽑혀 온 사학(四學)의 승보생(陞補生)인 유학(幼學)들이 거처하였다.

하게 한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除生進外. 京中志學之士. 皆入下齋及四學.
제 생 진 외 경 중 지 학 지 사 개 입 하 재 급 사 학

外方則勿論士族寒門. 凡學儒者. 皆入鄕校. 初入時.
외 방 칙 물 론 사 족 한 문 범 학 유 자 개 입 향 교 추 입 시

諸生十人. 薦其志學. 然後試講許入. 而學敎模範.
제 생 십 인 천 기 지 학 연 후 시 강 허 입 이 학 교 모 범

使之飭行. 若厭憚拘束. 不籍名于學敎者. 不得赴科擧.
사 지 칙 행 약 염 탄 구 속 불 적 명 우 학 교 자 부 득 부 과 거

생원과 진사를 제외하고 서울의 학문에 뜻을 둔 선비는 모두 하재 또는 사학에 들어가고, 지방에서는 문벌이 높은 집안이나 낮은 집안을 막론하고 유학을 배우려는 자는 향교로 들어가게 한다. 처음 입학할 때에는 생도 10명이 학문에 뜻을 가졌다고 추천한 뒤에 시험하여 입학을 허가하고, 『학교모범』으로 품행을 가다듬게 하고, 만약 구속을 꺼리어 학교에 적을 두지 않는 자에게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한다.

除: 제외하다, 除~外: ~외에/生進: 생원과 진사/京中: 서울에서/志學: 학문에 뜻을 세우다/士: 선비/皆: 모두/入: 들어가다, 입학하다/下齋: 하재/及: 및/四學: 사학/外方則: 서울 밖은/勿論: 막론하고/士族: 문벌 집안/寒門: 미천한 가문/凡: 무릇, 모두/學儒: 유학을 배우다/鄕校: 향교/初: 처음/入時: 입학할 때/諸生: 생도/薦: 천거하다/然後: 이후에/試講: 시험하다/許入: 입학을 허가하다/使: ~하게 시키다/飭行: 행실을 가다듬다/若: 만약/厭憚: 싫

어하고 꺼리다/拘束: 예로 단속하다/不籍名于學校: 학교에 적을 두다/不得: ~할 수 없다/赴: 가다, 참가하다

7.

서울과 지방에서 이미 학교에 들어간 자에 대하여 형편상 일시에 제적시키기 어려우면 오직 『학교모범』으로 몸을 가다듬게 하여 학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적시킨다.

사학에는 100명을 정원으로 하여 그 수를 채운다. 시험을 보여 이미 입학한 자를 다시 시험 보여 뽑는다. 5개 번으로 나누어 한 번에 20명씩 학교에 거처하게 하는데 10일을 기한으로 윤번제로 한다. 정원 내의 생도들에게는 하루에 두 끼니를 주며, 정원에 들지 못한 자 역시 5개 번으로 나누어 학교에 와서 배우게 하되, 식량은 각자가 갖추게 하고 공공 식량으로 먹이지 않는다.

지방의 모든 고을도 역시 시험을 보여 그 정원을 채우되, 목사가 있는 고을 이상은 정원을 90명, 도호부 이상은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하고, 만일 글에 능한 자가 부족할 때에는 정원수가 차지 않더라도 글에 능한 자만으로 많고 적음에 따라 정원에 맞추어 공공 식량으로 먹이는데 또한 5개 번으로 나눈다. 정원 내에 들지 못한 자는 5개 번으로 나누어 번 들기는 같이 하되 공공 식량은 먹이지 않는다. 지방의 공공 식량은 감사와 수령이 반드시 경영하고 계획하

여 이식으로 밑천을 마련해서 언제나 모자라지 않게 한다.

정원 내의 유생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원 외의 사람으로 시험 보여 보충한다. 당번이 되어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자는 첫 번째는 대면하여 꾸짖고, 두 번째는 생도들 속에서 쫓아내고, 세 번째는 출재한다. 출재란 스승에게 고하여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된 후에는 다시 학교에 오도록 허가하되, 생도들 속에서 쫓겨난 자와 학교에서 쫓겨난 자가 다시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면대하여 꾸짖는다. 네 번째는 학적을 삭제한다. 학적이 삭제된 자는 군역으로 돌린다.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졌더라도 반드시 초시에 입격한 뒤에야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질병과 사고가 있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자는 사유를 갖추어 스승에게 단자로 제출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사고를 핑계 대는 자는 들어주지 않는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京外已赴學敎之仕. 勢難一時汰去.
경 외 이 부 학 교 지 사 세 난 일 시 태 거

只令以學敎模範律身. 不遵學規者. 乃可汰去.
지 영 이 학 교 모 범 율 신 부 준 학 규 자 내 가 태 거

四學則以一百人爲定額. 試講足其數. 分作五番.
사 학 칙 이 일 백 인 위 정 액 시 강 족 기 수 분 작 오 번

每番二十人居學. 以十日爲限輪回. 額內儒生供兩時.
매 번 이 십 인 거 학 이 십 일 위 한 윤 회 액 내 유 생 공 양 시

若不參額者. 亦分五番來學而自備糧. 不得食公糧.
약 불 참 액 자 역 분 오 번 래 학 이 자 비 량 부 득 식 공 량

서울과 지방에서 이미 학교에 들어간 자에 대하여 형편상 일시에 제적시키기 어려우면 오직 『학교모범』으로 몸을 가다듬게 하여 학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적시킨다. 사학에는 100명을 정원으로 하여 그 수를 채운다. 시험을 보여 이미 입학한 자를 다시 시험 보여 뽑는다. 5개 번으로 나누어 한 번에 20명씩 학교에 거처하게 하는데 10일을 기한으로 윤번제로 한다.

京外: 서울과 지방/已: 이미/赴: 가다/勢: 형세/難: 어렵다/一時: 한번에/汰去: 도태시키고 제거하다/只: 다만/令: ~하게 하다/律身: 몸가짐을 법도에 맞게 하다/遵: 준수하다/學規: 학교의 규칙/可: ~가히 할 수 있다/四學: 사부학당/以一百人爲定額: 100명을 정원으로 하다/試講: 시강을 하다, 시험을 보다/足: 족하게 하다, 채우다/其數: 그 정원의 수/分作五番: 다섯 개 번으로 나누다/每番: 각 번마다/二十人居學: 20명이 학당에 거하다/以十日爲限: 20일을 기한으로 하다/輪回: 순번으로 돌아가다

8.

학교 생도들은 예로써 대우해야 하고, 수령들이 관청의 일로 부려서는 안 되며 오직 학문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교관의 구종 마련 같은 것도 생도들에게 책임 지워서는 안 되며 모두 관에서 마련

하고, 감사의 초도순시[37]와 왕명을 받든 이외에는 무릇 사신이 올 경우에도 알성[38]할 때 교문 밖에서 맞이하고 알성이 아니면 맞이하지 않는다. 비록 감사일지라도 만약 두 번째의 순시라면 성균관 문에서 맞이하지 않는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校生亦須待之以禮, 邑宰不得以官事, 有所差任,
교 생 역 수 대 지 이 례 읍 재 부 득 이 관 사 유 소 차 임

只令全心學問, 至如敎官從馬, 不可責辦,
지 영 전 심 학 문 지 여 교 관 종 마 불 가 책 판

皆自官中辦出. 除鑑司初巡迎命時外, 凡使臣到來時,
개 자 관 중 판 출 제 감 사 초 순 영 명 시 외 범 사 신 도 래 시

謁聖則只迎于校門之外, 不謁聖則不迎, 雖鑑司,
알 성 칙 지 영 우 교 문 지 외 불 알 성 칙 불 영 수 감 사

若再巡則不迎于官門.
약 재 순 칙 부 영 우 관 문

학교 생도들은 예로써 대우해야 하고, 수령들이 관청의 일로 부려서는 안 되며 오직 학문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교관의 구종 마련 같은 것도 생도들에게 책임 지워서는 안 되며 모두 관에서 마련하고, 감사의 초도순시와 왕명을 받든 이외에는 무릇 사신이 올 경우에도

---

37 초도순시(初度巡視) : 한 기관의 책임자나 감독자 등이 부임하여 처음으로 그 관할 지역을 순회하여 시찰함

38 알성(謁聖) : 공자의 사당에 배알하는 것

알성할 때 교문 밖에서 맞이하고 알성이 아니면 맞이하지 않는다. 비록 감사일지라도 만약 두 번째의 순시라면 성균관 문에서 맞이하지 않는다.

校生: 학교 생도/亦: 또한/須: 모름지기, ~해야 한다/待之以禮: 예로 대우하다/邑宰: 수령/不得: ~할 수 없다/以官事: 관아의 일로써, 관아 일 때문에/差任: 하리(下吏)를 임명하다/只令: 단지 ~하게 하다/ 專心學問: 학문에 전심하다/至如: 가령, 예를 들어/校官從馬: 교관의 말을 몰다/責辦: 책임을 지우다/自官中辦出: 관에서 맡아서 처리하다/除: ~을 제외하고/初巡: 초두순시/迎命: 명을 맞이하다/謁聖: 공묘에 참배하다/祗迎于校門之外: 단지 학교 문 밖에서 맞이하다. 雖: 비록/若: 만약/再巡: 두 번째로 순시하다/則: ~라면/不迎于官門: 관문에서 맞이하지 않는다

9.

한 해 걸러 8도의 모든 고을에 사신을 위임하여 보내서 생도들의 학업을 시험하고 몸가짐을 살펴 그것으로 교관의 능력 여부를 등급으로 매기어 보고하게 한다. 감사는 순회할 때마다 고시하여 그 상벌을 분명히 밝히고 수령이 위의 사목을 준행하지 않으면 경중에 따라 처벌을 논한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每間一年. 委送使臣于八道列邑. 試諸生學業.
매 간 일 년 위 송 사 신 우 팔 도 열 음 시 제 생 학 업

且考持身之狀. 第其敎官之能否以啓.
차 고 지 신 지 장 제 기 교 관 지 능 부 이 계

鑑司則每巡考試. 以明其黜陟.
감 사 칙 매 순 고 시 이 명 기 출 척

한 해 걸러 8도의 모든 고을에 사신을 위임하여 보내서 생도들의 학업을 시험하고 몸가짐을 살펴 그것으로 교관의 능력 여부를 등급으로 매기어 보고하게 한다. 감사는 순회할 때마다 고시하여 그 상벌을 분명히 밝힌다.

每間一年: 매년 한 해 걸러서/委送: 위임하여 보내다/使臣: 사신/于: ~에/八道列邑: 팔도와 각 고을/試: 시험보다/諸生: 생도/學業: 학업/且: 또한/考: 살피다/持身之狀: 몸가짐의 상태/第: 등급을 매기다/其校官之能否: 그 교관의 능력 여부/啓: 상부에 올리는 문서/每巡考試: 순시할 때마다 시험을 보다/明: 밝히다/黜陟: 내쫓거나 올리다, 상벌

10.

대과 소과 과거를 보일 때마다 태학에서는 과거 기일 전에 성균관 당상이 관관과 당장, 장의, 유사를 명륜당에 모아 상하재의 명부와 선한 행적과 악한 행적을 모두 가져다 놓고 평일에 보고 들은 것을 참작하여 행동에 오점이 없는 자를 선택하여 비로소 과거를 보게 한다.

사학에서는 학관들이 각각 해당 학교에 모여서 당장, 유사와 의논하여 가려 뽑기를 위와 같이 한다. 지방에서는 수령이 교관 및 향

교의 당장, 장의, 유사와 함께 위의 예와 같이 의논하여 가려 뽑는다.

시골에 있는 생원 혹은 진사로서 행동에 하자가 있어 과거에 응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수령이 한 고을의 공론을 채택하여 감사에게 보고해서 성균관에 통첩하게 한다.

만약 학문에 뜻을 둔 선비 중 이름이 군적에 편입된 자로서 과거 보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서울에서는 성균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수령이 그 진실과 허위를 살펴 그 실상이 확인되면 또한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가한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每大小科擧時. 太學則先期. 館堂上會館官及堂長,
매 대 소 과 거 시 태 학 칙 선 기 관 당 상 회 관 관 급 당 장

掌議, 有司于明倫堂. 盡取上下齋名錄及善惡籍.
장 의 유 사 우 명 륜 당 진 취 상 하 재 명 록 급 선 악 적

參以平日所聞見. 必擇行無玷汚者. 始許赴擧.
참 이 평 일 소 문 견 필 택 행 무 점 오 자 시 허 부 거

대과 소과 과거를 보일 때마다 태학에서는 과거 기일 전에 성균관 당상이 관관과 당장, 장의, 유사를 명륜당에 모아 상하재의 명부와 선한 행적과 악한 행적을 모두 가져다 놓고 평일에 보고 들은 것을 참작하여 행동에 오점이 없는 자를 선택하여 비로소 과거를 보게 한다.

每: 매번/大小科擧: 대과와 소과/時: ~할 때/太學: 성균관/先期: 기일 이전에/館堂上: 성균관 당상, 대사성/會: 모이다, 모으다/館官: 성균관 관원/及: 및/堂長: 성균관 학생 중 최고 연장자/掌議: 성균관 학생 대표/有司: 책임자/于: ~에/明倫堂: 성균관의 강의실 이름/盡取: 모두 취하다/上下齋名錄: 상재생과 하재생의 명단/善惡籍: 상벌책/參: 참고하다/平日: 평소/所聞見: 들은 바/必擇: 반드시 택하다/行無玷汚者: 행실이 흠과 하자가 없는 사람/始許: 비로소 허가하다/赴擧: 과거에 참가하다